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4년 제95호
2024.02.29.(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EU】 EU 탄소제거(Carbon Removal) 인증제도 도입 법안 3자 타협안 합의

【인도】 인도, 28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젝트 착수

【호주】 호주, 니켈 산업 불황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발표

주요 산업별 이슈

【이차전지】 EU 배터리법 18일 시행...’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원유】 홍해궤 공급 차질 우려, 유럽 경유 공급 부족으로 국제유가 상승

【반도체】 대만 TSMC, 日에 제1공장 개소...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

주간 이슈 포커스

【EU, 에너지】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잠정합의...원자력, 탄소중립기술로 인정

원자재 뉴스 PLUS

【에너지】 탄자니아에서 대규모 헬륨가스전 발견...헬륨 수급 안정화에 기여 기대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위험 요인 분석

III. 공급망 소식통

KOTRA, 2024 상반기 북업코리아 참가 안내

KOTRA,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가 안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규제 이슈

EU

EU 탄소제거(Carbon Removal) 인증제도 도입 법안 3자 타협안 합의

- 2.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이사화·유럽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EU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 법안의 타협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
 - 동 규정의 목적은 탄소 및 토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자발적 종합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50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
 -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영구저장, ▲장기저장설비에 최소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형태로 일시 저장, ▲탄소 농업을 통한 일시 저장 또는 배출 저감 등의 탄소제거 및 온실가스 저감이 적용 대상
- 해당 규정은 특정 탄소제거 프로젝트를 탄소제거 활동기간과 탄소제거 모니터링 기간으로 구분,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탄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 도입을 규정
 - 집행위는 동 규정 발효 후 4년 이내 EU 차원의 전자적 등록처를 구축하여, 탄소 제거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

출처: EU 집행위 보도자료('24.02.20), KBA Europe('24.02.2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인도

인도, 28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젝트 착수

- 2.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210억 달러(약 28조 원)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인도 공장 설립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
 - 인도 정부는 외국 반도체 회사의 인도 내 공장 설립에 해당 프로젝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계획으로, 해당 사업의 초기 예산 100억 달러(약 13조 3,100억 원)를 배정
 - 이스라엘의 타워세미컨덕터와 인도의 타타 그룹이 인도 구자라트주 반도체 공장 건설안을 제시하였으며, 타워세미컨덕터는 10년에 걸쳐 월 8만 개의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할 계획
- 인도는 지난 '23.7월 자국 기업 베단타와 대만의 폭스콘 간 합작투자가 무산되며 신규 반도체 산업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금번 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 재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
 - 한편 인도 정부는 美 마이크론이 구자라트주에 건설 중인 27억 5,000만 달러(약 3조 6,600억 원) 규모의 조립 및 테스트 시설에도 반도체 기금 지원 중

출처: 블룸버그('24.02.26.), 한국경제('24.02.26)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호주

호주, 니켈 산업 불황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발표

- 📌 2.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 지원을 준비함에 따라 니켈을 핵심 광물로 지정했다고 보도
 - ▶ 이에 따라 니켈 관련 기업들은 40억 호주 달러(약 3조 5,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보유한 호주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 및 관련 보조금 지급 등 자금 지원 수혜 가능
 - ▶ 서호주 주정부는 니켈 가격이 톤당 2만 달러 미만일 경우 18개월 동안 니켈 채굴자들에게 기존 세금*의 50%를 공제, 24개월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니켈 관련 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
- * 서호주는 니켈 판매 수익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22년 해당 세수는 1억 2,800만 호주 달러(약 1,100억 원)로 집계됨
- 📌 호주의 니켈 산업은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 유입과 전기차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었으며, 광물 가격이 작년에 43% 폭락한 후 수천 개의 일자리 감축에 직면
 - ▶ 호주 자원부 장관은 “국제 니켈 가격이 '24년까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니켈 과잉이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출처: 로이터통신('24.02.16), 파이낸셜 타임스('24.02.16) 등 언론보도 KOTRA 시드니무역관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이차전지

EU 배터리법 18일 시행... '31년부터 리튬 재활용 의무

- 📌 2.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3.7월 승인된 EU의 배터리 규정이 이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도
 - ▶ EU 배터리 규정은 전기차 배터리·휴대용 배터리·산업용 배터리 등에 적용되며, EU 역내에 수입되는 배터리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
 - ▶ 동 법안은 ▲폐배터리 회수, ▲배터리 여권 도입,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배터리 탈부착 및 교체 가능한 디자인, ▲2차 원자재 사용과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을 규정
- 📌 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 적용 시점이 상이하여 기업 부담은 내년부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될 전망
 - ▶ '36년 원재료 재활용 비율은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며, '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 설정
 - ▶ 한국의 경우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 존재

출처: 연합뉴스('24.02.12)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원유

홍해發 공급 차질 우려, 유럽 경유 공급 부족으로 국제유가 상승

- 🕒 2.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격화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1% 이상 상승했다고 보도
 - » 2.18일(현지시간) 후티 반군이 벨리즈 국적 화물선을 공격하여 기름이 일부 유출되었으며, 후티 반군은 홍해 지역 선박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잠수형 무기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
 - » 美·英 등은 이에 대응해 후티 거점 18곳을 공격하는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유럽 내 경유 공급 부족 우려가 확대되는 상황
- 🕒 또한 美 정제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유럽向 미국産 경유 수출량*이 감소하며 유럽 지역 경유 공급 부족 우려를 심화
 - * 2.16일 기준 美 중간유분(경유·등유) 수출량은 4주 전 대비 7만 b/d 감소한 105만 b/d
 - » 한편 현지언론은 홍해지역 운송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도産 경유가 유럽 대신 아시아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출처: 로이터통신('24.02.27), 한국석유공사 국제유가동향('24.02.27)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반도체

대만 TSMC, 日에 제1공장 개소...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재편 가속화

- 🕒 2.24일(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日 구마모토 제1공장이 개소했다고 보도
 - » 지난 '23.12월 완공된 해당 공장은 '24년 말부터 자동차·산업기기 등에 탑재될 12~28nm의 로직 반도체를 양산할 예정
 - » TSMC는 '27년 가동을 목표로 '24년 말 제2공장 건설을 착공할 계획으로, 자율주행·인공지능 관련 기기에 쓰일 6nm 반도체를 생산하며, 제1공장과 합쳐 월 10만 장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 美·日·EU는 중국産 레거시 반도체 분야의 존재감*이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상정, 日·대만 간 협력 강화 등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비
 - * '23년 기준 레거시 반도체 생산능력 순위: (1위) 대만, 49% / (2위) 중국, 29% / (3위) 미국, 6% / (4위) 한국, 4% [자료원: 대만 TrendForce]
 - » 업계 관계자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美·日·EU 등 고객이 요구하는 반도체 공급망 강화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24.02.20), 일본 경제브리핑 제24-08호('24.02.26) 등 언론보도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EU, 통상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잠정합의...원자력, 탄소중립기술로 인정

2.6일(현지시간) EU 이사회·유럽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탈탄소화에 필요한 역내 기술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ZIA)*에 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

*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 '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 수요의 40%를 자립화하도록 역내 제조역량을 구축하는 법안

원자력을 탄소중립기술목록에 최종 포함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허가 간소화·공공조달 우선순위 분류 등 혜택을 통한 관련 인프라 확대 프로젝트 개발 촉진 예정

탄소중립산업법(NZIA) 잠정 합의안

개 요	▶ 탄소중립기술목록· 전략적 프로젝트 선정기준 마련 통해 탄소중립기술의 산업적 도입 촉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탄소중립기술 제품의 세계 시장점유율 15% 도달 등 2가지 벤치마크 설정	
주요 내용	① 신속허가 및 전략프로젝트 지원	▶ 탄소중립기술 대상 분야 제조시설 구축 시, 허가 절차 간소화 ▶ 프로젝트에 따라 최대 12~18개월 내 허가, 탄소중립밸리 지정 통한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② 탄소포집·저장 가속	▶ '30년까지 연간 5,000만 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목표 설정
	③ 공공조달	▶ 특정 탄소중립기술의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공공조달 입찰 요건에 비가격 기준 의무 설정 ▶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기 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고, 탄소중립기술 또는 관련 부품의 역외의존도 50% 이하 설정
	④ 탄소중립역량 및 혁신개발지원	▶ 탄소중립아카데미 설립 통한 직원훈련 지원 및 각 회원국에 규제샌드박스 확립 권한 부여

[참고] 원자력 탄소중립기술 분류 합의

기존 및 신규, 핵분열·융합, 연료 주기 등 모든 원자력 기술을 목록에 포함

EU는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잠재적 기여를 공식 인정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전망

* 소형모듈원자로(SMR): 가압기·펌프·증기발생기 등의 주요 설비를 한 용기에 담아 일체형으로 만든 소형 원자로로, 전략 및 자원 요구량이 낮아 간헐적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의 전력망 안정성을 보장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의 이상적인 대체 방안으로 주목

유럽 최초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관련 산업연맹을 출범할 계획이며, 동 연맹을 활용해 '30년까지 역내 첫 소형모듈원자로를 배치할 계획

EU 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이 탄소중립기술로 인정받음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의 확대는 에너지 안보·탄소배출량 감축·신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 등에 혜택 가져올 것”으로 기대

반면, 한獨 친환경단체는 탄소포집·저장기술 및 원자력 등이 전략적 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풍력·태양광 기술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값비싸고 위험성 높은 기술을 위한 모호한 타협”이라고 지적

출처: EU 이사회 보도자료('24.02.06), EU 주간 브리핑 제117호('24.02.14) 등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에너지

탄자니아에서 대규모 헬륨가스전 발견...헬륨 수급 안정화에 기여 기대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헬륨가스*의 규모는 1,380억 입방 피트로 추정되며, 이는 약 20년 동안 전 세계 헬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입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 의료, 과학 분야에 필수적 자원으로 재생·대체가 불가

- 헬륨 가격은 '18년 한 해에만 135% 상승하는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한국은 전량 수입에 의존

[출처: 타임스 등 언론보도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종합]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4주)

◆ [비철금속] 中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동 가격 ↑, 주요 광산 가동중단으로 니켈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월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동	8,478	8,344	△1.6	8,176	8,426	3.1
니켈	21,474	16,091	△25.1	16,030	16,596	3.5
아연	2,647	2,521	△4.8	2,308	2,347	1.7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中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 추진에 따른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주요 구리 광산업체 생산실적 부진 및 거래소 재고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세 심화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2월 4주차 동 재고량은 124,795톤으로 전주대비 6.7% 감소, 4주 연속 감소세

(니켈) 호주 등 주요국 광산의 가동중단 결정으로 가격 상승압력 발생했으나,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처리 생산능력 확대는 상기 상승압력 부분적 상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2월 4주차 니켈 재고량은 70,325톤으로 전주대비 2% 감소, 2주 연속 감소세

◆ [철강] 中 부동산 경기지표 둔화로 철광석 가격 ↓, 유가하락 및 계절성 소비둔화로 유연탄 가격 보합세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3년	'24.1월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연료탄	173.32	124.14	△28.4	123.48	123.42	△0.05
원료탄	295.71	332.91	12.6	315.12	314.05	△0.3
철광석	119.32	135.40	13.5	126.93	123.31	△2.9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급)

(철광석) 中 부동산 경기지표 약세 지속에 따른 철강부문 원재료 수요둔화로 가격하방압력 발생

(유연탄)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계절성 소비둔화 우려로 가격 하락세 시현

▶ 다만, 中 최대 석탄 생산지인 산시성은 3~5월 탄광 안전점검 시행계획과 함께, 석탄 감산명령을 발표하면서 상기 하방압력이 상쇄된 것으로 분석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2월 4주)

◆ [희소금속] 금속별 中 춘절 연휴 이후 수요부진 및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3년	'24.1월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페로망간	1,266	1,131	△10.6	-	1,130	-
탄산리튬	35,697	13,331	△62.7	-	13,313	-
수산화리튬	35,944	11,305	△68.6	-	10,953	-
코발트	17.82	16.63	△6.7	17.00	16.95	△0.3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30,258	297,500	△9.9	-	265,300	-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78,383	58,309	△25.6	-	55,700	-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 (페로망간) 합금생산업체가 제강업체의 3월 입찰가를 주시하며, 거래 없이 가격 유지
- 🌀 (탄산리튬) 中 춘절 연휴 이후 수요업체의 충분한 재고량으로 거래 활동 부진세를 보이며 가격 하락
 - ▶ 수산화리튬은 탄산리튬의 가격과 함께 동반 하락세를 보이며 2.2주 대비 가격 하락, 수요업체들의 장기계약으로 현물거래 부진
- 🌀 (코발트) 中 금속가는 중국 춘절 연휴 이후 수요부진이 이어지며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 ▶ 유럽시장은 저렴한 중국산 코발트 유입으로 전주 대비 가격 소폭 감소
- 🌀 (희토류) 中 춘절 연휴 이후 영구자석 산업의 수요 부진과 현물 공급과잉으로 가격 하락

◆ [에너지] 中 금리인하 결정,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3년	'24년	전년비	2.3주	2.4주	전주비
두바이유	82.10	79.43	△2.67	78.85	81.64	2.79
브렌트유	82.17	79.88	△2.29	79.92	82.31	2.39
WTI	77.60	74.62	△2.98	74.60	77.36	2.76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 (국제유가) ▲ 中 금리인하 결정, ▲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세, 美 원유 재고 증가 및 美 기준금리 조기 인하 심리 위축 등은 유가 상승폭을 제한
 - ▶ 2.20일(현지시간) 中 인민은행은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를 4.25%에서 3.95%로 25bp 인하하여 '19년 도입 이후 최대 인하폭 기록
 - ▶ 2.16일 기준 美 상업 원유재고는 4억 4,296만 배럴로 전주 대비 351.4만 배럴 증가



공급망 더 알아보기

2024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위험 요인 분석



[작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참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현안 분석(2024.1.22)

2024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화석연료 안보 위험, 전력안보 위험, 지정학적 위험 및 공급망 위기, 美 대선을 비롯한 정치적 위험 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전통적인 석유·가스 안보 위험

- ▶ 세계 석유·가스 시장은 수요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지정학적 분쟁, OPEC+의 원유 감산 정책,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의 불안정 요인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4년에도 지속
 - (화석연료 수요 정점) 최근 IEA는 '30년 전에 화석연료의 수요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매년 화석연료 수요의 정점 시기를 앞당기고 있음
 - *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20%를 차지하고 있고, IEA는 '24년 국제 유가(Brent유)를 배럴당 82.57달러로 전망하고 있어 세계 휘발유 수요는 중·단기에 빠르게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 IEA는 '24년부터 천연가스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25년과 '26년에는 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정학적 위험) 중동 분쟁의 확장 가능성 등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유가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러-우 사태로 야기된 세계 석유·가스 시장 재편도 '24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 미국산 LNG는 유럽시장, 러시아산 PNG는 중국시장에 주된 공급원이 될 것이며, 각 시장으로 공급되는 물량도 계속 증대
 - (OPEC+ 감산 정책) 지속적인 감산을 통해 유가를 유지하려는 OPEC+의 원유 감산 정책이 유지되겠지만, 앙골라의 탈퇴 선언과 비OPEC 국가의 석유생산으로 유가 방어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OPEC+ 회원국들은 가격방어보다 시장점유율 확보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중국 경제 둔화 및 구조 변화로 인해 청정e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은 사라지고 있음. 성장세가 더 둔화되면 화석연료 수요는 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 중국의 전체 에너지 수요는 '20년대 중반에 정점에 도달하였고, 청정e 확대에 전체 화석연료 수요 및 배출량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음. 중국의 단기 성장률이 1%p 더 둔화된다면, '30년 중국의 석탄 수요는 현재 유럽 전체의 석탄 소비량만큼 감소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위험

- ▶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어 계통 유연성* 확보와 전력망 투자의 필요성이 '24년에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 * 전력 수급이 불안정할 때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계통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요반응(DR)과 에너지저장 등이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 투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전기차 보급 증가, 전기 냉난방 설비 증가, 수전해 수소 생산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증가된 전력 수요의 대부분이 변동성 재생에너지로 충족될 것이므로, 이러한 전력계통의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력망 투자 수준을 '30년까지 약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

지정학적 위험 및 공급망 위기

- ▶ 현재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크게 2개축으로 블록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는 주요 에너지 및 핵심광물 부존국의 자원민족주의 정책에 대응해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기업은 공급물량 확보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우호적 국가의 기업과도 간접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데, 지정학적 분쟁이 확대·심화되면 기업의 이러한 생존 전략도 어려워질 수 있음
- 한편,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에너지 정책과 투자결정을 계획·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성보다 국가 안보와 공급 안정을 더 중시하면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심화되고,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정치적 위험: 美 대선 결과

- ▶ '24년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가 지정학적 위험, 세계 에너지 및 기후 안보 환경에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 (지정학적 위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마스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런 경우에 에너지부문에서는 미국-중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망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확대·고조되어 국제 석유·가스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원이 줄어들면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바탕으로 휴전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 (청정에 지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IRA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청정에너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삭감되고, 화석연료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음
- ▶ (기후·환경 정책)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환경 정책도 크게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먼저 기후·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연비규제,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등 각종 행정규제가 철폐되고, 파리협정의 재탈퇴가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와 같이 일부 주들과 민간차원의 기후·환경 노력은 현재 바이든 정부와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임
- ▶ (IPEE 합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산업보호를 최우선시 하므로 트럼프 당선 시, '22.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무역촉진 협정 합의는 어려울 것이며, IPEF에서 탈퇴할 가능성도 있음
- IPEF의 총 4개 분야 중에서 공급망 안정화, 청정경제, 공정경제(핵심광물 조달) 관련 협정들은 참가국들 간 합의가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무역촉진 협정에 대한 합의만 남아 있는 상황



공급망 소식통

2024 BOOM-UP KOREA

2024.4.15.(월)-16(화)
서울 코엑스 B홀

KITA x KOTRA MEGA Biz TRADE SHOW

모집기간 ~ 2024.3.13.(수)

행사규모 해외 바이어 500개사, 국내기업 3,000개사

프로그램 1:1 수출상담회, 부대행사(쇼케이스, 계약MoU 등)

신청방법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① KOTRA 무역투자24 ▶ 기업소속 일반회원 가입 ▶ 사업신청 ▶ '2024 상반기 북업코리아' ▶ 신청하기 (bit.ly/4a0DfYq)
- ② 상담주선시스템 가입 ▶ 참가업체 참가신청 (boomupkorea.com)
- ③ 상담 가능 시간 설정 및 상담 희망 바이어에 상담신청(기한 : 2.9-3.13)

※ '기업소속 일반회원' 가입 必 / ①, ② 모두 완료하여야 상담 가능



모집 분야

구분	세부품목
소부장	기계·중장비, 전기·전자·자동차, 조선 기자재, 항공·반도체 등
에너지·환경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수소 등), 원전기자재, 환경기자재(수처리, 폐기물처리)
GPP(프로젝트)	환경, 수송인프라, 플랜트, 에너지, 원전 등
서비스	콘텐츠,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스포츠테크
ICT	스마트 SOC(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등), ICT융복합 전반
소비재	뷰티, 패션, 식품 등 소비재 전반
바이오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무역상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500개사)	기계, 뷰티, 화학, 식품 등 전문무역상사가 취급하는 종합품목

문의처 상담관련 문의는 해당 분야의 담당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대표메일 | service_dx@kotra.or.kr

소재부품장비팀 | 02-3460-7639 / 7642

인프라 에너지산업팀 | 02-3460-7498

서비스산업팀 | 02-3460-3318 / 7732

ICT융복합팀 | 02-3460-7477 / 7463

소비재팀 | 02-3460-7617 / 3343 / 3344

바이오의료팀 | 02-3460-7622 / 7620

중소혁신기업팀(전문무역상사) | 02-3460-7544 / 7539





공급망 소식통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가 안내



[작성] KOTRA 해외프로젝트실

KOTRA는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유망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발굴·조달 프로세스 팔로우업·시장조사·로드쇼 등 맞춤형 기간제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 개요

- ▶ 모집 기간 : '24.2.16. ~ '24.3.2. * 신청기업 미달 시 기간 연장 가능
- ▶ 지원 기간 : '24.4.1. ~ '24.12.31.
- ▶ 지원 목적 :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 강화
- ▶ 지원 방식 : 국고7 : 기업3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국내기업 참가비 300만 원)
- ▶ 지원 내용 : ① 해외 조달시장 정보 및 입찰 동향 조사, ② 프로젝트 발굴, ③ 현지 벤더 발굴
④ 해외 전시회·로드쇼 및 KOTRA 지사화 사업 연계 지원

세부 추진내용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사업공고 및 기업모집	○ 국내기업 모집(2.16~3.2, 단, 신청기업 미달의 경우 연장 가능)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기업 평가	○ 기업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적합성 80% + 기업적합성 20%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기업 선정	○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에 적합한 기업 13개사 선발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참가비 납부	○ 기업 참가비 납부(VAT 포함 300만 원)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협약서 체결	○ 기업 협약서 체결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		
사업 수행	○ 사업 수행	KOTRA 해외 무역관
↓		
결과 보고	○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신청 및 관련 문의

- ▶ 신청 : KOTRA 무역투자24 홈페이지의 [\[2024 해외 공공조달 선도기업 육성사업\]](#)(링크)에서 서류 구비하여 참가신청
- ▶ 관련 문의 : ☎ 02-3460-7499 (KOTRA 온실가스국제감축팀)

글로벌 경제지표 (24.2.27.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2말	'23말	'24.1말	2/23	2/26	2/27	전일비	23말비
₩/US\$	1,264.50	1,288.00	1,334.60	1,331.00	1,331.10	1,331.00	△0.01%	3.34%
선물환(NDF, 1월물)	1,265.30	1,286.80	1,332.60	1,329.30	1,329.30	1,329.30	0%	3.30%
₩/CNY	181.44	181.37	185.88	184.99	184.92	184.94	0.01%	1.97%
₩/Y100	945.56	912.25	902.85	883.62	884.76	884.56	△0.02%	△3.04%
Y/US\$	133.73	141.19	147.82	150.63	150.45	150.47	0.01%	6.57%
US\$/EUR	1.0617	1.1105	1.0816	1.0822	1.0824	1.0849	0.23%	△2.31%
CNY/US\$	6.9630	7.1092	7.1817	7.1964	7.1978	7.1983	0.01%	1.25%

* 23년 평균 환율: (₩/US\$) 1305.9원, (₩/¥100) 931.6원, '24년 평균 환율('24.1.1~현재): (₩/US\$) 1327.6 (₩/¥100) 902.6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3년 최저(해당일)	'23.12.29	'24.2.26(전일)	'24.2.27	비교			
					전일비	'23년최저비	'23년말비	
원유(두바이)	70.31(3.20일)	77.08	80.42	82.06	1.64	11.75	4.98	
					2.0%	16.7%	6.5%	
철광석	97.35(5.24일)	140.50	116.00	118.20	2.20	20.85	△22.30	
					1.9%	21.4%	△15.9%	
비철금속	구리	7,812.50(10.5일)	8,476.00	8,373.00	8,396.50	23.50	584.00	△79.50
						0.3%	7.5%	△0.9%
	알루미늄	2,068.50(8.21일)	2,335.50	2,140.50	2,146.00	5.50	77.50	△189.50
						0.3%	3.7%	△8.1%
니켈	15,885.00(11.27일)	16,300.00	16,985.00	17,075.00	90.00	1190.00	775.00	
					0.5%	7.5%	4.8%	

반도체

	'21	'22	'23.11월	'23.12월	'24.1월	2/22	2/23	2/26	2월(~2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66	1.74	1.86	1.97	1.97	1.97	1.94
(%, YoY)	29.9%	△23.0%	△23.1%	△14.8%	△3.6%	8.9%	10.1%	10.1%	6.5%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42	6.38	6.38	6.42	6.42	6.42	6.42
(%, YoY)	14.7%	10.7%	△1.7%	△2.3%	△1.9%	△0.5%	△0.5%	△0.5%	△0.7%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2.12.30	'23.12.29	2.2	2.9	2.23	전주비(2.9)	'23년말비
SCFI	1107.55	1759.57	2217.73	2166.31	2109.91	△2.6%	19.9%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2.12.23	'23.12.22	'24.1.1	2.22	2.23	2.24	2.27	전일비(2.24)	'23년말비
BDI	1515	2094	1308	1752	1866	1871	1899	1.8%	△9.3%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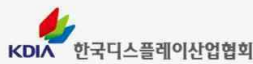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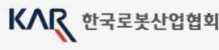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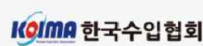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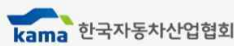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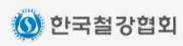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